

비핵화 및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에 따른 북한 군수공업의 성과 및 전망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I. 머리말

2017년 말에 전망된 2018년도 북한 군수공업의 가동률 예보는 ‘상당히 맑음’이었다. 북한이 화성 14호 및 화성 15호 등 중장거리탄도탄의 시험발사에 연이어 성공함으로써 2018년에도 미사일의 시험발사 및 실전배치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생산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로부터 촉발되는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 고조가 북한 군수공업의 생산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을 증명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핵무기연구 부문과 로켓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와 탄도로켓트를 대량생산하여서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¹⁾ 핵탄두 및 로켓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연초부터 적극 독려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탄두 및 로켓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의 생산도 강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고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²⁾ 이는 군수공업 전반의 개발생산 및 현대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조선중앙방송, 2018년 북한 신년사, 2018. 1. 1.
2) 조선중앙방송, 2018년 북한 신년사, 2018. 1. 1.

이와 같은 2018년 초반의 환경 및 상황전개를 바탕으로 2018년 북한 군수공업은 로켓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대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금세 어긋나고 말았다. 2018년 신년사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선포한 것은 2018년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이다. 당일 많은 결정서가 전원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천명하였다. 그동안 힘을 쏟던 핵무력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와 더불어 물적 및 인적 자원의 총동원을 통해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건설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2018년 4월부터는 자체 군사력 증강을 위한 생산보다도 인민경제건설 지원을 위한 생산에 국방부문의 강조점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과거 북한은 군수공업 부문을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보루 중 하나로 인식해 왔다. 북한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군수공업을 우선시하고 그 생산을 독려해 왔으며,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지급해 왔다. 군수공업 종사자에 대한 격려와 치하는 상시적인 일이었으며 군수공장 시찰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8년 4월 북한의 전략노선 변경 이후 이러한 격려와 현장방문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국방공업 현지지도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단 2회에 불과하였다. 7월 17일에 이루어진 청진조선소에 대한 현지지도와 11월 6일에 이루어진 국방과학원 시험장 방문 및 첨단전술무기 시험지도가 그것이다. 그런데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은 2017년 이전의 빈번한 현장시찰에 비해 매우 적은 횟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시찰 활동을 모두 다 내보내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언론상에서의 실적 저하가 실제 실적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예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지도 실적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이후부터 군수부문 종사자에 대한 치하와 격려도 뜸한 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진 국방과학원 시험장 방문 및 첨단전술무기 시험지도 자리에서

“우리국방과학자와 군수노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에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 놓았다.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가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이다.”라고³⁾ 국방공업 부문의 성과를 치하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2018년 4월 이후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치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9년 신년사에서 “나는 또한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업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증명하기 위해 온 한 해 헌신분투한 우리 국방과학자와 군수노동계급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라고⁴⁾ 치하한 바 있으나, 이는 매년 신년사에서 반복되던 의례적인 감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도 군수공업 부문 자체의 성과보다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총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노선’을 수행하는 데에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군수공업 부문에 대해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에 대한 우리 당의 정치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구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라.”라고 언급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⁵⁾ 과거와는 달리, 국가보위를 위한 군수공업 본연의 역할보다도 경제건설 지원을 위한 군수공업의 부차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4월 11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3기 제6차 대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여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4월 23일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관철에 총결기, 총매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북한 군부의 위상 저하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 듯하다. 김정은은 취임 이후 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와 권력 내 서열저하 등을 통해서 군을 통제하여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듯하다. 과거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임되던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최고인민회의의 13기 제6차 대회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 및 국무위원 등 한 단계 낮은 직위에 보임되어 그 위상 저하가 관찰되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에 대한 군 보고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2018

3) 조선중앙방송, 2018. 11. 16.

4) 조선중앙방송, 2019년 북한 신년사, 2019. 1. 1.

5) 조선중앙방송, 2019년 북한 신년사, 2019. 1. 1.

6) 『노동신문』,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틀어쥐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2018. 4. 23.

년 12월 29일에 개최된 군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군사정치 활동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 중앙에 보고하고 당의 명령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칼날 같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⁷⁾ 군수공업의 민수생산 지원과 더불어 여기저기서 군의 위상 약화가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에 따라 북한의 도발양상도 크게 변화하였다. 2017년 그렇게도 빈번하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완전히 중지되고 한반도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지가 곧바로 무기체계 생산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무기가 폐기된다면 안전보장을 위한 억제력 확보를 위하여 재래식 무기 생산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실험발사 중단에 상관없이 미사일 생산활동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다소 모자라는 미사일 시험발사 이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시험발사 없이 야전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험발사 없이 곧바로 실전배치되었던 무수단 미사일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가 반드시 북한 군수공업의 생산축소로 연결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하에서 2018년 실제 북한의 군수생산 실적은 어떠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2018년 북한 군수생산의 실적을 추정해본 후 2018년 북한 군수공업의 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첫째, 군사전략 및 군사정책의 측면에서 2018년 북한 군수공업의 생산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018년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핵공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억제시키거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를 통해서 자국 통치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통해 핵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래식 무기 증강은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발사대 및 운반체계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탱크 및 야포와 같은 재래식 공격무기의 생산은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추진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전략은 타당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한은 핵폐기를 대신하여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래식 무기의 증강이 핵폐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힘의 공백을 다소나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핵폐기 대신에 주어질

7) 조선중앙방송, 2018. 12. 30.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국 및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북한의 안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만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북한은 핵폐기 대신에 재래식 무기 증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탱크, 야포 및 항공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집중적으로 증강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첨단전자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투능력이 뒤처지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로 한국 및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탱크와 야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확보가 핵폐기를 대신해 주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 한국 및 미국 재래식 무기체계의 성능이 북한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북한이 많은 수량의 탱크나 야포를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대비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는 없다. 더구나 야포 및 방사포의 경우 북한은 비대칭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한국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야포 및 방사포의 추가 생산 및 획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의 증강은 북한의 대남 및 대미 억제력을 증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억제력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거부적 억제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일부 보복적 억제능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공미사일 및 대함미사일 등을 통해서 거부적 억제능력을 증대시키고 장사정포, 방사포 및 미사일의 탄두파괴력 증강 및 대수 확대를 통해서 보복적 억제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체계 및 장사정포체계 등에 있어서 한국과 대비하여 뒤지지 않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체계의 국내생산을 통해서 억제능력의 확대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격용 미사일만이 아니라 대공미사일 및 대함미사일 등과 같은 방어용 미사일도 북한이 억제력을 확대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핵폐기가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다양한 방어용 및 공격용 미사일을 확보 및 배치함으로써 억제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사일에 대한 북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그 결과 다른 무기체계 관련 군수공업의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공업의 생산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대,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18년 북한의 미사일 생산활동은 상당히 활발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formation Studies)가 운용하는 'Beyond Parallel'이 주목한 2018년 북한 삭간물 및 산음리 등에서의 미사일 활동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전략적 이유 때문에 최근 북한이 방어용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대공방어미사일을 번개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최근 번개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서 대공방어미사일체계의 발전에 적극 힘쓰고 있다. 2012년 5월에 기존의 번개 5호를 개량한 번개 6호가 김정은 위원장의 시험발사 참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은 번개 6호의 성능이 요격비행속도 마하 12, 요격사거리 400km 및 요격고도 185km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최신예 지대공미사일 S-400에 견줄만하다고 자랑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번개 1, 3, 4호 등의 대공방어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함탄도미사일의 개발생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군은 2018년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하에서 신형무기체제시험을 실시하였다. 2017년 이전에 빈번하게 실시되던 미사일 시험발사가 2018년도 들어와서는 처음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미사일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첨단전술무기'라고 칭하였는데, 이 미사일은 중단거리 대함미사일인 금성3호로 추정되었다.⁸⁾ 그런데 금성3호는 2015년 2월 북한이 대함미사일 고속정인 '해삼급'을 공개할 때에 포착된 바 있다. 형상은 구소련의 즈베즈다사가 개발한 kh-35 우란 대함미사일과 거의 비슷하다.

둘째, 2018년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미사일 생산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엘리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민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런데 핵심엘리트 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소는 평양이므로, 핵심엘리트 계층의 불만이 높아지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평양에서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야만 한다. 그런데 평양에 가장 많은 산업시설은 미사일 관련 생산시설이다. 산음동의 평양 병기연구소, 평양 반도체공장, 1·25 기계공장, 만경대 약전기계 공장, 만경대 기계공구공장 등이 평양에 위치한 미사일 생산관련 시설이다. 따라서 2018년 한 해 동안 평양 시민들이 일하는 이 공장들에서 미사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 7월 30일에 미 첩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한 워싱턴포스트가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⁹⁾ 이는 2018년 평양에서 미사일 생산활동이 지속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한국 및 미국의 항공기 및 함정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체 항공기 및 함정의

8) 『문화일보』, 「지대함 미사일 금성-3호 개량형 등 초정밀 순항미사일 가능성에 무게」, 2018. 11. 16.

9) Washington Post. "U.S. spy agencies: North Korea is working on new missiles." 2018. 7. 30.

획득 대신에 대공미사일 및 대함미사일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항공기 및 함정의 개발능력보다도 미사일 개발능력이 훨씬 우수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가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18년은 북한이 군 현대화 5개년 계획(2014~18년)을 마무리 짓는 해였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불구하고 무기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군 현대화의 주안점이 2018년까지 ‘육해공 핵타격 능력 완비, 미사일 위력 확인, 핵탄두 소형화, 핵잠수함 건조 등’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핵 관련 활동이 위축되었을 수 있는 2018년에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관련 활동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김수길 총정차국장은 2018년 12월 19일에 열린 군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국방공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혁명공업으로 발전시켜 인민군대를 첨단무기로 무장시킨 것이 김정은 최대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¹⁰⁾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2018년에도 군수공업 생산은 예년의 수준에서 상당 부분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북한 국방공업의 2019년 생산 전망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경제건설 지원’ 및 ‘국방공업의 주체화 및 현대화 지속’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2019년 북한의 군수공업 부문은 북한의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국방부문은 자체 군사력 증강을 위한 생산보다도 인민경제 건설 지원을 위한 생산에 강조점이 주어졌다’고 말하였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는 국방공업 부문의 성과를 치하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으나 2019년 신년사에서는 2018년 군수공업 부문 자체의 성과보다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총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노선’을 수행하는 데 노력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9년 신년사에서 군수공업 부문에 대해 “경제발전에 집중할 데에 대한 우리 당의 정치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구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 등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였다”라고 치하한 바 있다.¹¹⁾

한편, 2018년 4월 11일의 최고인민회의 13기 제6차 대회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관철에 총결기 및 총매진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으며, 지난 12월 29일에 개최된 군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경제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3일자 노동신문 사설은 경제사업 우선과 경제발전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북한 군수공장에서

¹⁰⁾ 조선중앙방송, 2018. 12. 30.
¹¹⁾ 조선중앙방송, 2019년 북한 신년사, 2019. 1. 1.

8.3 인민소비품목의 생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군이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항인 삼지연군 건설 등에 지속적으로 동원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그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은 2019년도에도 국방공업 부문 주체화 및 현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쓸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이 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의 효율적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체화’ 측면에서 북한 고유의 무기체계 및 전술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것이며, ‘현대화’의 측면에서 오래된 무기의 업그레이드 및 군수공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목표는 공식적인 언급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조선 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의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¹²⁾ 지난 12월 29일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및 과학화 등이 향후의 군사과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결과 2019년에 재래식 무기 생산은 주춤할지라도, 북한은 무기체계의 상대적인 대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파괴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함미사일 및 대공미사일 등 자체 로켓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군수공업의 활발한 생산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원료와 에너지 부족이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상당한 원료 및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철강의 예를 들어보자. 북한이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강생산에 필요한 코크스와 전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코크스 및 정제유가 수입금지 또는 제한되어 북한은 철강부문의 원료 및 에너지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원료 및 에너지의 배분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즉, 군수공업 부문이나 민수공업 부문 중 어디에 제한된 원료 및 에너지를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과거 원료 및 에너지 배분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항상 군수공업 부문이었다. 즉, 북한은 군수공업 부문에 대한 원료 및 에너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을 독려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전처럼 원료 및 에너지의 군수공업 부문 우선 배정 정책을 밀고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2019년 군수공업은 연료 및 에너지 제한으로 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에서 예를 든 강철 생산의 부족으로 탱크 및

12) 조선중앙방송, 2019년 북한 신년사, 2019. 1. 1.

야포 등의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미사일 생산의 경우는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상에 있어서도 그 제한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북한은 ‘주체철’ 공정 개발 등을 통해서 코크스 없이도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갈탄을 원료로 하는 철강생산 공정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그래서 북한은 ‘주체철’ 공법을 사용하는 철강생산 공정을 확대함으로써 원료 및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공정의 효율성과 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체철 공정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2019년 철강재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2019년 군수공업의 생산 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 비해 상대적 인 집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비록 미사일 생산과 같은 일부 부문은 2019년에도 상당한 생산 실적을 기록할 것이지만, 탱크 및 야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래식 무기의 생산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이 실제로 적중되기 위해서는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핵폐기가 진전되고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편이다.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의 군수공업은 위에서 제시된 2019년 전망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된다.